

# 내 눈을 뜨게 한 조선그릇

글 서기원 소설가

편집자의 주문은 지난 삶에서 전기(轉機)가 된 체험, 또는 영향을 준 독서 경험 같은 것을 얘기하라는 것이다.

짧지 않은 세월을 되돌아보니 그런 체험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하다.

이것은 사람마다 체험에 대한 반성이란 자기 인식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매우 주관적인 것이어서 자칫하면 남 보기에 의미 없는 독백에 그칠 염려가 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떤 특정한 계기보다 나의 내면의 일부를 형성해 온 과정을 돌이켜보는 것으로 대신할까 한다.

## 인사동 고미술점 드나들며 조선그릇에 매료되다

나는 명색 소설가라 해서 글을 써왔지만 소년기에서 청년기를 거치는 동안 음악과 미술에 관심을 쏟았고 어른이 된 이후에도 좀 과장해서 미적(美的) 편력이라고 할까, 글 쓰는 고역보다는 아름다움에 대한 호기심과 갈망을 충족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

그 중에서도 도자기 특히 조선그릇에 대한 탐닉은 나의 미의식, 삶의 방식 등에 은근한 영향을 끼쳤다고 여겨진다.

조선도자기 입문은 1960년 4·19와 이듬해 군사쿠데타를 겪고 인사동의 고미술상점을 드나들면서였다.

그 입문의 계기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고 아마도 고물을 좋아하다보니 자연스레 그리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기차생활을 할 때라 모갯돈이 없어 값진 물건은 엄두를 못 내고 이따금 싼 것을 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차츰 나는 고미술상들의 감식안과 나의 선호(選好)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고미술상에서 거래되는 비싼 것이 반드시 진가(眞價)를 뜻하는 건 아니다 싶은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이것은 고가(高價)의 물건을 살 능력이 없는 데서 나온 보상적 발상일 수도 있겠거니 싶었지만 반드시 그런 탓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으니 이제는 이런 고집을 믿어도 좋을 나이가 된 듯도 하다.

그래서 도자기에 관한 책들을 닦치는 대로 읽고, 많은 공부를 하게 됐으나 국내에서 간행된 책들 가운데 나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일본인이 쓴 책들이 되려 나의 구미에 맞아 공감을 주었던 것이다. 1930년대에 발간된 ‘도자기강좌’라는 시리즈물이 있는데 이조도자기에 관한 것이 한 권으로 돼 있었다. 저자는 오쿠무라라는 사람인데 조선도자기의 전문가로 꽤 이름이 났던 것 같다. 그 이전 사람으로는 아사카와(淺川) 형제에 관한 얘기는 대충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의 책도 보았지만.

체계적인 모양을 갖춘 점에서 오쿠무라 것이 한결 도움이 되었다. 그 책에는 광주, 용인, 이천 등지의 도요지(가마 자리)를 망라한 지도가 들어 있었다. 나는 궁금증을 누를 수 없어 그 지도를 가지고, 중요하다 싶은 도요지를 더듬어 찾기 시작했다.

그 무렵 나는 낚시에 미쳐 있어서 다른 여가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지만, 한 달에 두 번쯤은 주말 답사를 했다. 거기서 주운 사금파리는 연대 측정과 가마 이름을 추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알다시피 조선그릇은 관요(官窯)와 민요에서 나온 것을 구별한다. 관요의 경우 광주의 금사리(金沙里)와 분원(分院) 것이 유명하고 이 이전으로 도마리(道馬里)를 쳐주지만, 조선조 전기(前期)에 있어서는 도마리와 기타의 관요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어찌 보면 고미술 상들이 오랜 경험으로 그냥 지정(指定)을 한 것이 많았을 것이다.

조선조 초기의 분청(粉靑)사기는 계룡산 가마와 전라남도 지방 것이 흔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었기에 가장 특징적인 계룡산을 빼고는 가마 이름을 대기가 수월치 않다.

이렇게 쓰다가는 한량이 없으니, 결말부터 얘기해야겠다.

### 조선그릇에 대한 애정과 집착, 내 삶의 내재적 방향성을 좌우하다

관요 것은 대개 궁중 진상물이지만 세도가의 주문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 때문에 관요에서는 용(用)과 미(美)를 겸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쓰임새도 좋아야 하고, 겉보기에 아름답고 단정해야 했다. 사실은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요컨대 당대의 상류층과 교양인들의 눈에 차야 했다고 할까(모든 예술은 당대의 감식수준을 넘기 어렵다).

물론 나도 조선초기 관요의 백자를 좋아하고 탄복한다. 조상들의 심미안(審美眼)의 높이를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민요에서 나온 것 중에 아름다움의 본질을 타고난 것이 드물지 않다.



민요의 대부분은 일반 백성들의 수요(需要)에 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거기엔 미의식보다도 용의식(用意識)이 앞서 있다. 쓰임새를 중시했지 모양새엔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기가 본디 도자기란 생활도구로서의 구실과 장식물의 구실이 융합된 것이지만 근·현대에 내려 올수록 미적 가치를 더 쳐주게 되었다.

민요 것의 아름다움은 어떤 의미에서 감상하는 사람을 무시한(혹은 무시해도 상관없는) 데서 우리나라오는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생산자(즉 작가)의 무명성(無名性) 혹은 익명성(匿名性)이 당연시됐기 때문이고, 또 수요자들의 요구도 그 이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하면 도공(사기장이)들은 사회의 최하층으로 제조자의 이름을 밝힐 처지가 못되었던 셈인데, 이진 비단 도자기뿐 아니라 목공이나 석공 등 기타 공예품의 경우에도 공통되는 현상이다.

중국의 도자기는 최소한 가마의 이름을 밝히고, 일본은 제조자의 이름을 내세우며 대를 이어간다. 이 무명성의 문제는 집단적 미의식과 상통하는 것이기도 하여 중동과 이집트, 그리고 아프리카의 조각 등 프림티브 아트의 본질과도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민요의 조선그릇은 원시공예품과도 다른 어떤 문화의식을 감축할 수 있으니 원시 미술을 보는 눈으로만 볼 수 없는 탁월한 조형감각을 느낄 수 있다.

자연스러움, 작위(作爲)가 없다는 것, 소박함, 텅텅함, 순수성 등 표현이 조선그릇에 대한 흔한 찬사이다.

물론 옳은 말이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거개의 원시미술에서도 통하는 것이다. 조선그릇엔 그 형태의 조형성, 그리고 철회(鐵繪)백자 그림의 무의식적으로 표현한 추상성(抽象性)은 놀랄 만큼 초시대적(超時代的)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나는 그런 것을 달리 더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해묵은 나의 고민 중의 하나가 돼 있다.

조선그릇의 무명성과 추사(秋史) 김정희의 기명성(記名性)은 서로 대극(對極)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또 다른 문제이다.

조선그릇에 대한 애정과 집착은 나의 미의식 형성에 큰 작용을 했고, 우리나라의 현대미술을 보는 데도 하나의 참고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내 삶의 내재적(內在的) 방향성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어온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저 어쭙지 않은 편견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미적 체험은 편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